

김구의 윤리적 문화국가론과 자유주의

이용철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동양정치사상 전공
withyclee@gmail.com

I. 머리말

II. 윤리적 문화국가의 개념과 가치관의 형성

III. 윤리적 문화국가의 정당성: 국민통합과 국제평화

IV. 윤리적 문화국가의 조건: 정신적 자유와 자율

V. 맺음말

I. 머리말

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한반도는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국가건설의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방과 더불어 남북한은 38도선을 경계로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고, 나아가 국제적인 냉전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1948년 8월과 9월에는 남북한에 각각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해방 후 3년의 정치사에서 한국에서는 실로 다양한 국가건설의 구상이 표명되었다. 그것은 정치이념에 따라 이승만·김구의 자유주의, 안재홍·여운형의 사회민주주의, 박헌영의 공산주의의 계열로 대별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안에서 특히 백범 김구(1876-1949)의 ‘윤리적 문화국가’ 건설의 구상에 주목하여, 그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려는 것이다.

김구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 이념을 견지했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민족주의의 상징’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확실히 그의 73년에 걸친 전 생애는 근대국민국가의 형성운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1893년에는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고, 1903년부터는 기독교를 수용했으며, 서구의 신학문에 의한 애국계몽운동과 교육사업을 전개했다. 1919년에는 3·1 독립운동 직후에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에 참가했으며, 이후 1945년까지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면서 실질적으로 임시정부의 항일운동을 지도했다. 그리고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연합국의 신탁통치 구상에 대한 반대운동, 이승만의 한국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반대운동, 남북한의 협상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김구의 정치행동을 일관되게 지탱한 것이 한민족에 의하여 단일한 독립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그의 민족주의였다.¹⁾

그러나 한편, 김구의 민족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는 보다 근본적으로

1) 네이션(nation)은 민족, 국민, 국가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다. 하나의 네이션은 반드시 하나의 민족 및 인종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구는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주로 민족의 혈통과 역사, 문화의 동질성에서 찾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의 에스닉 내셔널리즘을 민족주의로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에스닉 내셔널리즘은 김구뿐만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등에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성격이고 북한의 김일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점에 관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신기욱 저, 이진준 역,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창비, 2009)를 들 수 있다.

문화적인 이상주의, 즉 이상적인 문화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신념에 의하여 지탱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민족국가의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높은 보편적인 문화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이고 방법이었다. 이런 점에서 그의 국가건설 구상은 단지 '민족국가'나 '자유국가'로서 특징지을 수 없는, '문화국가'의 내용을 지니는 것이었다.

문화국가의 이념은 현대의 국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국민의 행복과 통합, 인류의 평화와 복지에 공헌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것은 김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의 문화국가론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도덕적 이상주의에 근거하여 다양한 진선미의 문화가치 중에서도 특히 윤리적·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문화가치의 추구하고 실현이 해방 후의 새로운 국가건설과정에서 한국 및 남북한의 국민통합을 가져오고, 동시에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윤리적인 문화가치의 실현이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 부터 국민의 정신적 자유와 자율이 확보됨으로써 가능하다고 파악하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민주적인 의무교육을 주장했다.

이러한 김구의 윤리적인 문화국가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도덕적 이상주의의 주장은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되는 현대의 글로벌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에서 단지 현대한국의 이상국가론의 한 유형으로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류의 인문주의적 문화전통의 하나로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도의에 근거한 국제인식과 보편적인 국제규범에 대한 강조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제국주의적 힘의 논리에 대한 비판과 적극적 평화론의 한 시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정신적 자유와 자율에 대한 강조는 현대의 국제정치에서 문화가 또 하나의 국가권력, 즉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서 이야기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 주도에 대한 시민사회 주도의 문화국가론의 한 시도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

2) 조셉 나이(Joseph S. Nye)는 국제정치에서의 파워(권력)를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로 나누고, 문화를 후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전략의 하나의 수단으로 중시했다(Joseph S.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참조). 한국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입각하여 이상환, 「김구의

김구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져왔지만, 문화국가론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것은 비교적 적다. 이 글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특히 '윤리적' 문화국가론으로서의 그의 국가론의 특성을 부각하고자 한다.³⁾ 이하 제II장에서는 윤리적 문화국가의 개념의 특징, 김구의 삶에서 윤리적 가치관의 형성과정을 검토한다. 그리고 제III장에서는 그가 해방 후 국가건설에서 윤리적 문화국가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았는가에 대하여 국민통합과 국제평화라는 양 측면에서 고찰한다. 제IV장에서는 문화국가의 발전조건으로서 무엇을 강조했는가에 대하여 국민의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국민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민주적 의무교육이라는 양 측면에서 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그의 문화국가론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윤리적 문화국가의 개념과 가치관의 형성

1. 문화국가와 윤리적 문화국가

문화국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대 민주국가의 시민헌법에서 거의 공통된 개념규정이 존재한다. 즉 '단지 소극적으로 사회의 치안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의 문화발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진선미의 문화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국제정치관에서 본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 정경환, 「백범김구의 이상국가론-문화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2006)은 김구의 문화국가론을 국가주도 전략론의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해석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 3) 김구의 국가론을 검토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김삼웅, 『백범 김구 평전』(시대의 창, 2004), 15장: 문중섭, 「백범김구의 이상국가론과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 이상국가론의 내용분석」,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2호(2009); 신용하, 「백범김구의 새 민주 문화국가 건설론과 세계평화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6집(2008); 정경환, 위의 논문; 한시준, 「백범김구의 신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3집(2005) 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는 일반적으로 김구의 국가론에 대하여 '자주독립국가', '자유국가', '문화국가'의 여러 측면을 지니는 것으로 논하고 있다. 이 글의 특징은 김구의 국가론의 핵심이 무엇보다도 문화국가의 구상에 있다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나아가 진선미의 문화적 가치 중에서도 특히 선의 영역, 즉 윤리와 도덕의 문화가치의 실현을 강조하는 '윤리적' 문화국가를 지향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에 있다.

그리고 이 경우, 특히 시민의 자유와 자율성을 중시하여 국가의 역할을 시민의 문화활동에 대한 외적인 조건의 보장에 한정한다. 이는 19세기 독일의 문화국가(Kulturstaat)주의, 즉 나라의 행정이 국민의 정신생활까지 간섭하여 국가 스스로가 문화정책의 주체이려고 하는 이념과 다른 것으로 시민주체의 ‘문화적인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⁴⁾

김구는 자신의 사상을 ‘문화국가’라는 개념으로 체계적으로 논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국가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무엇보다 “높은 문화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 가령 그의 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나의 소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⁵⁾

나아가 김구는, 이 글의 IV장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보다 높은 문화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정치적 조건으로서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즉, “오직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⁶⁾, 철학에 근거한 독재체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김구의 사상을 ‘문화국가’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때, 그것은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치안 유지에 한정하는 야경국가관이나, 국가 스스로 문화가치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른바 문화국가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현대시민헌법에서 파악하는 문화국가의 개념, 즉 문화적 활동에 대한 시민의 자유와 자율의 보장을 전제로 하여 보다 높은 문화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4) 杉原泰雄, 「『文化国家』の理念と現実—日本国憲法下における『文化と国家』, 『法律時報』 第71卷 6号(1999), 43쪽.

5) 김구 지음,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김구 자서전』(돌베개, 2002), 431쪽. 이하 『백범일지—김구 자서전』으로부터의 인용은 ‘김구, 『백범일지』’로 표기한다. 한편, 『백범일지』의 다양한 판본의 출판경위에 관해서는 김삼웅, 앞의 책, 433-438쪽; 양윤모, 「김구와 『백범일지』」, 『한국학보』 제28권 1호(2002)가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

6) 김구, 『백범일지』, 428쪽.

그런데 어떤 특정 국가가 진선미의 문화가치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김구는 특히 어떤 문화가치를 중시한 것일까? 그는 문화국가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사상과 언론의 자유의 절대적인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문화의 존재가 보다 높은 문화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한편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도 특히 규범적인 문화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문화라는 말은 원래 ‘경작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cultura’에 어원을 두고 있다. 농업에서 경작을 통하여 수확을 얻는 것처럼 영혼을 경작한 결과, 즉 정신의 도야에 의한 바람직한 인격의 형성을 문화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고전적인 서구의 인격문화의 개념은 근대에 들어와 변화하게 된다. 문화란 자연과 대립되는 ‘사회적 차원’의 것으로 자연의 야만상태를 극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기서 문화는 문명과 거의 같은 의미로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근대 이후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심화되면서, 문화의 개념은 유용성에 근거한 물질적인 문명의 개념과 분리된다. 이곳에서 문화는 현실적인 생활을 초월한 것이 되고, 인간성의 완성이라는 이상적인 의미가 보다 강조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대중사회의 심화, 미국의 가치중립적인 문화인류학의 확산 등의 요인에 의하여 문화에 대한 다양한 파악방식이 나타나지만, 완전한 인격의 형성이라는 규범주의적인 의미는 현대에서도 중요한 문화개념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⁷⁾

김구의 문화적 이상론은 이러한 규범적인 문화개념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는 문화의 본질적 요소로서 무엇보다도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중시했다. 그에게 “인류사회의 문명과 야만은 도의관념의 유무에 의하여 경계가 구분되는” 것이다.⁸⁾ 또한 인류가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도의 관념의 상실, 즉 이기심에 의한 증오와 투쟁의 확대재생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7) 이상엽, 「문화, 문화학, 문화철학」, 『사회와 철학』 제7호(2004), 59-69쪽 참조.

8) 김구 지음, 백범학술원 편, 『백범 김구선생 언론집(상)』(나남출판, 2004a), 90쪽.

것은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이다. 김구는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⁹⁾

이와 같이 김구는 진선미의 문화가치 중에서도 무엇보다 선과 관련되는 문화 영역, 즉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중시했다. 이러한 김구의 도덕적 이상주의는, 다음의 제Ⅲ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문화국가 왜 요청되는가’ 하는 정당성의 문제를 국민통합과 국제평화의 양 차원에서 논하면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Ⅳ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문화국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조건 및 방법의 문제를 정신적 자유와 자율의 양 차원에서 논하면서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구가 추구했던 문화국가는 특히 윤리와 도덕의 영역에서 보다 높은 문화가치의 실현을 지향했다는 의미에서 ‘윤리적 문화국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2. 윤리적 문화가치관의 형성

김구가 윤리적인 문화가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젊은 시절의 다양한 학문과 사상의 학습,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체험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학의 가르침의 습득과 불교 및 기독교의 종교체험은 그의 규범적

9) 김구, 『백범일지』, 431쪽.

10) 김구가 지향했던 문화국가를 ‘윤리적’ 문화국가로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문화적·평화적·세계주의적’ 내용 등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구성내용을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특히 이 글의 제Ⅲ장에서 살펴보는 대로, 김구의 보편적인 도덕주의는 그의 문화국가론의 평화적·세계주의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덕적 이상주의에 의하여 그의 문화국가론의 평화적·세계주의적 성격이 도출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윤리적 문화국가라는 개념은 평화적·세계주의적 내용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가치에는 학문, 과학, 기술 등의 진, 예술 등의 미의 영역이 존재한다. 윤리적 문화국가의 규정은 이러한 여타 영역의 가치들에 대하여 김구가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특히 선의 영역을 중시했다는 것을 부각하려는 것에 그 의도가 있다.

인 문화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¹¹⁾

유교 경전에 대하여 김구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저술, 연설, 휘호 등을 통하여 익히 알려져 있다. 이것은 그가 20세 전후로 하여 당시 저명한 유학자였던 고능선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것에서 연유한다. 이곳에서 김구는 유학의 인의도덕, 충효, 의리와 같은 덕목을 체득하게 된다. 후일 그는 유교의 가르침 안에서 특히 '의리'의 의미를 중시하여, "아무리 발군의 뛰어난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라도 의리에서 벗어나면 재능이 오히려 화근이 된다는 것과 사람의 처세는 마땅히 의리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¹²⁾

이 시기에 습득한 유교의 윤리관은 이후 전 생애에 걸쳐 김구의 가치관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 가령 김구는 유교교육 직후 이른바 '신서적'을 통하여 서구의 개화사상에 접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는 정통유교의 가르침에 반하여, 서구인들이 "공자·맹자의 그림자도 보지 못했지만 그 이상으로 발달된 법도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오랑캐에게 배울 것이 많고 공자·맹자에게는 버릴 것이 많다는 것"을 새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 위에서 "이제부터 우리는 세계 문명 각국의 교육제도를 본받아서 학교를 세우고 이 나라 백성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그들을 건전한 2세들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윤리관과 정치의 제도를 구별하여, "의리는 유학자에게 배우고 문화와 제도 일체는 세계 각국에서 채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국가의 복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³⁾

한편 김구는 22세에 불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된다. 그러나 불가에서의 생활은 "오직 청정적멸의 도법에만 일생을 희생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1년 반 만에 끝나게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승려의 수행에서 제일 요구되는 '하심', 즉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금수나 곤충에게도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가르침과, 세상사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허영과 야욕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는 불교 특유의 입장은 그에게 내재되어 있던 강렬한 사회의식과 충돌하게 된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 김구의 사상형성에 관해서는 김삼웅, 앞의 책, 553-557쪽; 정경환, 「백범김구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민족주의론과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0집(1998), 323-335쪽 참조.

12) 김구, 『백범일지』, 63쪽.

13) 위의 책, 115쪽, 178-179쪽.

이 기간은 그가 불교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구가 지향해야 할 문화가치의 하나로서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배경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에서 환속한 후에 김구는 26세부터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이듬해 정식으로 세례를 받았다.¹⁵⁾ 기독교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 하나는 기독교의 사상 및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를 통하여 서구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것들이 보장되는 새로운 국가건설에 대한 신념은 기독교 사상을 통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김구는 이 시기부터 서구의 학문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한편, 민중에 대한 계몽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학교의 설립과 운영 등, 이른바 ‘신교육’ 운동에 매진하게 된다. 또 하나의 의미는 기독교 윤리관을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기독교로의 개종과 더불어 김구는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에 종사하고 그 신앙을 죽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¹⁶⁾

이상 보아온 대로 김구의 윤리적인 문화가치론은 젊은 시절에 습득한 유학의 가르침과 불교 및 기독교의 윤리관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나아가 그는 이러한 토양 위에서 문화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성인(聖人)’을 지적하고 있다.¹⁷⁾ ‘성인’이란 말은 종교와 사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가령 유교에서는 인의도덕, 불교에서는 자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는 최고의 윤리가치를 구현한 인격을 의미한다. 김구는 자신은 기독교의 신앙을 견지하였지만, 성인이란 용어를 보편적인 종교의 여러 가르침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윤리와 도덕적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고 인격의 완성을 강조하는 김구의 문화국가론은 성인의 요구에서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것이다.¹⁸⁾

14) 위의 책, 154-156쪽.

15) 김구의 기독교로의 개종과정에 대해서는 김삼웅, 앞의 책, 145-150쪽 참조.

16) 김구의 기독교신앙은 해방 후 기독교의 집회에서 행한 다음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건국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건국이요, 둘째는 건교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동시에 종교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종교 없는 나라는 업신을 남에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교화한 나라는 어떠한 강국이라 할지라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김구 지음, 백범학술원 편, 『백범 김구선생 인문집(하)』(나남출판, 2004b), 14쪽.

17) 김구, 『백범일지』, 432쪽.

18) 김구의 ‘성인’ 개념에 주목하여 그의 문화적 이상주의가 지닌 보편적 성격을 강조한 논문으로는 엄연석, 「김구의 인문적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화철학적 목표」, 『인문연구』

Ⅲ. 윤리적 문화국가의 정당성: 국민통합과 국제평화

1. 윤리적 문화가치와 국민통합

해방 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 데 김구가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는 문화국가를 주장한 근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윤리적 문화가치를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감을 형성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가치의 세계적 확산과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그의 윤리적인 문화국가론은 내셔널리즘과 국제평화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것이고, 역으로 이 두 가지 정치적 지향은 윤리적인 문화가치에 의하여 내적으로 불가분한 것으로 결합되는 것이다. 이러한 김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이 주장되고 있다.

나는 오늘날 인류 문화의 불완전함을 안다. 나라마다 안으로는 정치상, 경제상, 사회상으로 불평등, 불합리가 있고,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나라와 나라의, 민족과 민족의 시기, 알력, 침략, 그리고 그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작고 큰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어서, 많은 생명과 재물을 희생하고도 좋은 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인심의 불인과 도덕의 타락은 갈수록 더하니, 이래가지고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인류는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세계에는 새로운 생활원리의 발견과 실천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담당해야 할 천직이라고 믿는다.¹⁹⁾

이처럼 김구는 새로운 인류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그 문화를 형성해야 하는 사명을 한민족에게 ‘천직’으로서 부여했다. 그가 해방 후 한국을 새로운 문화 창출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에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다. 우선 객관적인 조건으로서 대륙과 해양의 세력을 연결하는 완충지로서의 국토의 지리적인 위치를 들 수 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와 양차 세계대전의 비참함을 경험한 직후에 새롭게 나라를 만든다는 시기적인 여건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김구가 여기에서 무엇보다 강조한 것은 한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배양해온 문화전통과 의지, 즉 “제주와 정신과 과거의 단련”이었다.²⁰⁾ 이런 이유로 그는 한국이

제55호(2008) 참조.

19) 김구, 『백범일지』, 425-426쪽.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²¹⁾

그러면 김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한민족 고유의 문화전통으로 생각한 것일까? 해방 전후에 쓰인 그의 저술을 검토하면, 주로 다음 세 가지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첫째, 고대조선에서 단군의 홍익인간과 이화세계의 이념, 둘째, 유교문화에 의한 인후의 덕, 셋째,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3·1 독립운동의 정신이다.

첫째, 홍익인간이란 ‘널리 인간세계에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천명했다는 국가건설의 이념이다. 한반도에서 단군에 대한 숭배사상은 고려시대의 원나라의 침입 등 국가 존망의 위기 시에 특히 강조되었다. 일본의 지배하에서도 안재홍, 최남선, 신채호 등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에 의해 단군의 존재와 이념은 한민족의 문화의 독특성과 우수성을 증명하는 역사로서 찬양되었다.²²⁾ 김구는 단군을 역사상의 인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단군에서 시작되는 민족의 역사 및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홍익인간이라는 이념이 보편적인 문화가치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다.²³⁾

둘째, 인후(仁厚)의 덕이란 인간관계에서 ‘인간 상호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김구는 ‘인’의 개념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하지는 않았지만, 고대 유교의 전래 이래 인후의 덕이 한반도에 전통적인 문화로 정착했다고 파악했다. 그에 의하면 한민족은 본래 “타인의 것을 빼앗거나 타인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는 사람”이고, 이러한 인의 문화의 실현에 의하여 “공자도 우리 민족이 사는 토지에 오고 싶다고 하셨고 우리 민족을 인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하셨다”고 주장했다.²⁴⁾

셋째, 김구는 3·1 독립운동의 의미가 단지 반일 저항에 있는 것이

20) 위의 책, 432쪽.

21) 위의 책, 431쪽.

22) Gi-Wook Shin 저, 이진준 역, 앞의 책, 89-95쪽 참조.

23) 김구, 『백범일지』, 431쪽. ‘홍익인간’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에서 ‘인류공영’의 의미로 해석되어 한국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규정되었다. 김삼웅, 앞의 책, 562쪽.

24) 김구, 위의 책, 432-433쪽.

아니고, 한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의 발현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의 해석에 의하면 3·1 독립운동에 나타난 민족정신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²⁵⁾ 첫째, 자존과 공존의 정신이다. 이것은 “능히 공존하지 못하는 자는 능히 자존하지 못한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한민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오직 신의와 화목을 닦아 세계와 더불어 공존 공생하는 것”을 전통적으로 국제도로 삼아왔다. 둘째, 민주와 단결의 정신이다. 이것은 “민주가 아니면 단결하지 못하고 단결이 아니면 능히 외적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한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독립된 민족국가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와 단결의 정신이 강했기 때문이다. 셋째, 기개와 도의의 정신이다. 이것은 한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넷째, 자신과 자존의 정신이다. 이것은 한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한 고유의 문화전통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김구는 홍익인간의 이념, 유교적 인의도덕의 문화,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문화전통을 강조하고, 그것들이 새로운 평화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김구의 주장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평화에 대한 진지한 회구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그곳에는 해방 후의 새로운 국가건설 과정에서 문화적 전통의 연속성과 우수성을 강조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김구에게 민족이란 선조와 언어와 문화, 즉 “피와 역사를 같이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로서 실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상이나 이해관계도 초월하는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는 각각의 민족이 문화적 동질성에 근거하여 형성한 국가, 즉 단일민족국가가 다민족국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로서는 크게 두 가지 근거가 제시되었다. 하나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특히 다민족국가에서 불평등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피와 역사를 같이하는 민족이란 완전히 있는 것이어서 내 몸이 남의 몸이 못

25) 김구 지음, 백범학술원 편, 앞의 책(2004a), 139-143쪽 참조.

됨과 같이, 이 민족이 저 민족이 될 수 없는 것이 마치 형제도 한집에서 살기 어려운 것과 같은 것이다. 둘 이상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자면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하나는 위에서 명령하고 하나는 밑에서 복종하는 것이 근본 문제가 되는 것이다.²⁶⁾

또 하나의 이유는, 단일민족국가에서 각각의 민족문화가 보다 원활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구는 세계의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가족처럼 사는 사해동포주의를 인류의 “크고 아름다운 목표”로 인정하면서도, 인류의 현 단계에서의 가장 확실한 진리는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한민족이 해야 할 최고의 임무로 우선 자주독립의 민족국가를 세우고, 그 위에 “민족의 정신력을 자유롭게 발휘하여 빛나는 문화를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⁷⁾ 이처럼 김구의 문화국가론은 민족주의와 깊이 관련되는 것이었다. 즉, 한민족 고유의 윤리적 문화전통의 연속성과 우수성을 부각함으로써 그것을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감을 형성하여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문화국가론은 문화적 민족주의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구의 문화민족주의는 한민족 고유의 문화전통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리상 한 국가 내에서 문화적인 동질성을 공유하지 못하는 타자, 즉 문화적으로 통합될 수 없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한 국제적으로는 다른 민족 및 국가의 문화전통을 경시하거나 배척하는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나아가 상황에 의해서는 극단적이고 배외적인 쇼비니즘으로 전화되어 국가 및 민족 간의 관계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김구의 사상에는 문화민족주의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두 가지의 이론적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민족자결권의 보편성에 대한 주장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 문화가치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이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하여 자신의 문화국가론이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6) 김구, 『백범일지』, 424쪽.

27) 위의 책, 425쪽.

2. 윤리적 문화가치와 국제평화

김구는 한민족 고유의 문화전통의 우수성을 부각하는 한편,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즉, 국제사회에서의 다양한 민족 및 국가의 문화적 자유와 평등을 중시했다. 이러한 김구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민족자결권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민족자결권(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이란 기본적으로 각 민족 또는 인민이 스스로의 지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 사상의 원류는 19세기 유럽에서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으로까지 거슬러갈 수 있지만, 당시 적용의 대상은 이른바 '문명민족'만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나아가 자결의 원리는 1917년의 러시아 혁명 이후에 레닌, 그리고 1918년의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하여 제창되었지만, 양국의 국제전략 및 국익에 의하여 한정되었고, 국제사회에서도 국제법상의 권리라고 하기보다는 약소민족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는 정치적인 원칙 내지는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²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의 권리는 국제연합에서 일련의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과정을 통하여 법적인 의미를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었다. 즉, 1945년의 UN헌장 제1조 제2항, 1960년의 제15회 총회결의인 '식민지 독립부여선언', 1970년의 제25회 총회결의인 '우호관계선언', 1970년대에 이루어진 국제사법재판소의 일련의 법적 의견, 그리고 UN의 다양한 반식민지화 활동에 의하여 국제법상 권리로서의 의미가 현저히 강화되었다.²⁹⁾ 또한 단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세계평화의 내실 촉진, 인권보장, 발전도상국의 천연자원 및 경제발전의 권리 등과 결합되어 자결권은 그 내용과 의미가 풍부해졌다.³⁰⁾ 그러나 이러한 전개에도

28) 松井芳郎, 『現代の國際關係と自決權』(新日本出版社, 1981), 21-28쪽.

29) 위의 책, 28-35쪽; 家正治, 『國際連合と民族自決權の適用』(神戸市外国語大学外国語研究所, 1980), 3-16쪽 참조. 두 학자는 1960년의 UN총회 결의에 의하여 민족자결권이 국제법상의 권리로 확립되었다고 파악한다.

30) 松井芳郎, 앞의 책, 11-17쪽; 金東勲 『人權·自決權と現代國際法—國連實踐過程の分析—』(新有堂, 1979), 99-192쪽 참조. 특히 김동훈은 자결권 내용의 발전에 대하여 "타 민족의 지배하에 있는 인민과 민족이 자치와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외적 자결(external self-determination)로부터, 국외로부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정치적 입장을 자유롭게 결정하거나 그 사회경제적·문화적 발전을 추구할

불구하고 UN총회의 결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결의 개념이 실정국제법상의 권리로 확립되어 있는 것인가, 또는 독립국가 내부의 소수민족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등 실제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³¹⁾

김구는 민족자결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민족주의에 대하여 “자기 민족만을 강화하고 다른 민족을 압박하는 주의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도 독립자유가 되어 다른 민족과 같이 완전한 행복을 향유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³²⁾, 그가 자결권에 대하여 한민족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확고한 법적인 권리로 인식한 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그에게 민족자결의 권리는 다른 민족이나 인민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되고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민족자결권의 보편성에 대한 신념은 각 민족의 고유 역사와 문화전통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전술한 대로 국제평화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민족마다 최선의 국가를 이루어 최선의 문화를 낳아 길러서 다른 민족과 서로 바꾸고 서로 돕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나아가 상호 이해와 협력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차간에 주관적 우월감으로 타 민족이나 타 국가를 멸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의 이익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³³⁾ 이런 측면에서 김구의 문화민족주의는 적어도 원리적으로 민족자결주의를 매개로 하여 국제적으로 배타성을 넘어서서 포용성을, 그리고 독선을 넘어서서 공정성을 지향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제 민족의 자결권 및 고유한 역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문화다원론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다양한 개별문화를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 이해하고 문화의 차이 및 다원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서구근대의 문화보편론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계몽주의에 입각한 문화보편주의는 문화를 자연상태와 구분하고, 인류의 모든 문화가 거의 같은 방식으로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진화, 발전해가는 것, 즉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보하는 역사적 과정의

수 있는 내적 자결(internal self-determination)로 변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金東勳, 위의 책, 274쪽).

31) 家正治, 앞의 책, 15쪽; 金東勳, 위의 책, 273-274쪽.

32) 김구, 『백범일지』, 309쪽.

33) 김구 지음, 도진순 편, 『백범어록』(돌베개, 2007), 362쪽.

산물로 파악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김구는 제 민족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의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 문화다원론의 입장이 그대로 문화상대주의의 옹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은 개별 문화 사이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저해하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화의 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문화철학적 성찰이다. 문화철학이란 “보다 포괄적인 인류의 이상을 가지고 문화 자체를 반성적인 시각에서 고찰하는 철학적 작업”으로 규정할 수 있다.³⁴⁾ 즉, 다양한 문화의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모습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통하여 바람직한 문화의 규범적인 기준을 세우고 미래의 이상적인 문화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상적인 문화는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보다 상위의 보편적인 인문적 가치를 내포하게 된다. 종교, 도덕, 정치, 사회의 제 영역에서 인류가 정신유산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보편적인 가치가 이에 해당한다. 김구가 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윤리적인 문화가치의 보편성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문화철학적 입장에 의한 것이었다.³⁵⁾

김구는 새로운 국제평화가 윤리적인 문화가치, 도의관념의 “진보”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인류사회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정의와 인도는 살아 있다”고 하고, 역사의 진행과 함께 “인류가 진보하는 까닭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해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평화로도 능히 해결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³⁶⁾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일제 시대의 지배적인 국제인식에 대하여 그 본질이 도의관념의 부재, 즉 “수단만 강조하고 도의를 무시하는 이기주의”의 문화에 있다고 비판했다.³⁷⁾

근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인식은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이는 다윈의 생물 진화론을 정치사회와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양육강식, 적자생존이라는 경쟁 원리에 의하여 인간의 사회도

34) 엄연석, 앞의 논문, 316쪽.

35) 위의 논문, 316-317쪽 참조.

36) 김구 지음, 도진순 편, 앞의 책, 226쪽.

37) 김구 지음, 백범학술원 편, 앞의 책(2004a), 85쪽.

점차 진화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제국주의적 세계의 현실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곳에서 국제정치는 이른바 정치적 현실주의라는 관점에서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투쟁으로 파악되었고, 어떠한 국제적 규범이나 원칙도 비현실적인 약자의 논리로 무시되었다. 김구는 이러한 국제인식을 평화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동양의 도덕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했다. 그에 의하면, “동방문화는 서구에 비하여 우세한데, 그 원인은 도의관념이 공리주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평화를 위하여 동양 고유의 ‘왕도문화’에 복귀하여야 하는데, 왕도문화란 “고대 동방의 많은 성현들은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불의를 막는 것을 처세의 최저원칙으로 삼았는데, 이를 대인대용(大人大勇), 견의용위(見義勇爲)라고도 하고, 또는 인자(仁者)에게 적이 없으며 시종 구세안민을 기본 원리로 한다고 말하는데, 힘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거나 다른 사람의 위협을 기회로 생각하거나 남의 재산을 찬탈하는 것 등을 철저히 배척하는” 것이다.³⁸⁾

도이에 근거한 김구의 국제인식은 비현실적인 관념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그에게 국제규범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이었다. 따라서 그는 항상 그의 국제인식과 정치적 판단이 “원칙은 옳지만 관념적인 도의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만일 원칙이 옳다면 그것에 입각한 도의는 반드시 관념적이 아니라 과학적이며, 과학적인 도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주장하였다.³⁹⁾

이상과 같이, 김구가 해방 후의 국가건설에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윤리적인 문화가치를 강조한 근거에는 무엇보다 보편적인 국제규범의 창출과 공유에 의하여 평화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한다는 목적과 그것이 실현 가능하다는 신념이 있었다. 물론 현실의 국제정치에서 평화는 단지 가치규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힘의 관계에 의한 평화는 그것이 균형에 의한 것이든 억지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이고 불안한 것이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제규범의 공유와 제도화에 의한 평화는 그 실현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수 있으며,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38) 김구 지음, 도진순 편, 앞의 책, 90-91쪽.

39) 위의 책, 224쪽.

적극적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국제적인 도의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김구의 주장은 보다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평화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윤리적 문화국가의 조건: 정신적 자유와 자율

1. 정신적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김구는 해방 후 국가건설의 과제에 당면하여 윤리적인 문화국가의 주장에 의하여 국민통합과 국제평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그러면 이러한 국가는 어떻게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일까? 보다 높은 문화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조건이 요구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김구는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신적 자유를 보장하는 정치체제의 확립과 국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민주교육을 강조했다.

우선 전자의 정신적 자유는 김구에게서 절대로 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문화국가의 조건이다.⁴⁰⁾ 현대 시민헌법에서 정신적 자유란 사상과 양심·종교·학문 영역에서의 인간 내면의 자유와 표현·집회·결사·통신 영역에서의 인간의 외면적인 정신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상언론의 자유로 부른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가 높은 문화가치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문화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의 진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구는 정신적 자유 중에서 특히 언론의 자유를 중시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상이라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세상에 발표되어 문화의 다양성과 진보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40) 김구는 자유주의를 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여, 신앙, 사상의 자유와 같은 사적 자유와 집회, 결사, 참정권과 같은 공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삼균주의에 근거하여 평등을 위한 사회주의적 원칙을 수용하여 토지 및 대규모 생산기관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이러한 양면성을 문화국가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 기초로는 자유주의를, 사회경제적 기초로는 사회주의를 요청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사회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를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문제는 김구의 정치이념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구의 자유주의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전재호, 「해방 이후 김구의 정치이념과 자유주의」, 『신아세아』 14권 3호(2007) 참조.

“오직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만 진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신적 자유와 다양한 문화의 존재의의를 자연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산에 한 가지 나무만 나지 아니하고, 들에 한 가지 꽃만 피지 아니한다. 여러 가지 나무가 어울려서 위대한 삼림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백 가지 꽃이 섞여 피어서 봄들의 풍성한 경치를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나라에는 유교도 성하고 불교도 예수교도 자유로 발달하고, 또 철학을 보더라도 인류의 위대한 사상이 다 들어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할 것이니 이리하고야만 비로소 자유의 나라라 할 것이요, 이러한 자유의 나라에서만 인류의 가장 크고 가장 높은 문화가 발생할 것이다.⁴¹⁾

나아가 김구는 정신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한다. 이 경우, 국민이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권의 형성이나 구체적인 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즉,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 이전에 그것이 형성되는 절차의 민주적 과정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구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민주주의를 “국민의 의사를 알아보는 하나의 절차 또는 방식”으로 파악하고,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다수결의 복종”을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⁴²⁾ 바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만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형식적 자유, 즉 정신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이에 의하여 보다 높은 문화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편 김구는 정신적 자유를 저해하는 “가장 무서운” 정치체제로서 “철학을 기초로 한 계급독재”를 지적하고 있다.⁴³⁾ 그리고 그 역사상의 실례로서 조선왕조시대의 “양반정치”와 “소련식 민주주의”를 들고 있다. 우선 전자에 대하여 김구는 조선왕조의 정치를 양반에 의한 일종의 계급독재로 비판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한 점은 그것이 배타적인 유일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구는 전술한 대로 패도에 대하여 왕도론, 그리고 권력적 현실주의에 대하여 도덕적 이상주의를 주장했으며 이 점에서 유교 및 주자학의 사상을 높이 평가했

41) 김구, 『백범일지』, 428-429쪽.

42) 위의 책, 429쪽.

43) 위의 책, 427쪽.

다. 그가 비판한 것은 주자학과 정치권력이 일체화된 유교국가의 존재방식이었다. 그는 유일철학에 의한 독재가 단지 정치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선사회의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언론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위축되어 다양한 새로운 발상이나 사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철학독재에 의하여 조선민족의 “문화는 소멸되고 원기는 마멸된 것”이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조선왕조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망한 최대의 원인을 이곳에서 찾았다.⁴⁴⁾

또한 김구는 이른바 “소련식 민주주의”가 인류의 역사상 유일사상에 근거한 계급독재 중에서도 가장 철저한 것으로 “독재정치”의 모든 특징을 극단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⁴⁵⁾ 그가 말하는 소련식 민주주의란 당시 소련, 중국, 북한 등의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의미한다. 공산주의의 이론에 의하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이며,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형식적 절차의 공정함보다 정책 내용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김구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자유성의 확보를 절대적 조건으로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가 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⁴⁶⁾

더구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최후의 유일한 진리로 여기고, 이에 대한 어떠한 비판이나 반대도 경찰이나 군대, 정보기관 등의 국가의 강권력을 동원하여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렇게 국가의 절대권력과 유일사상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소련식 공산주의는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유사하다. 그러나 김구는 공산주의 독재가 사상의 치밀함과 정치적 억압의 정도에서 유교 독재를 능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철저히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⁴⁷⁾ 그에게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한 문화의 진보는 어떠한 특정 사상이나 철학도 유일한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철저히

44) 위의 책, 427-428쪽.

45) 위의 책, 428쪽.

46) 김구 지음, 도진순 편, 앞의 책, 394쪽.

47) 김구는 공산주의의 철학독재가 “조선의 예전의 사문난적에 대한 억압 이상의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전 인류의 사상이 마르크스주의 하나로 통일된다면, “그런 인류의 큰 불행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구, 『백범일지』, 428쪽.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2. 민주교육과 자율성

문화국가의 발전에 대한 김구의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민교육의 방법론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즉, 정신적 자유의 보장과 함께 국민의 자율성이 증진될 수 있는 민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국가의 건설과정에서 교육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김구의 기대는 거의 절대적인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종사했다. 1903년경에 기독교에 입신한 직후 소규모의 학교를 설립하여 신학문을 가르친 것을 계기로 1907년부터는 황해도의 양산학교를 중심으로 국민계몽을 위한 신교육사업에 매진했다. 그리고 1919년에 상해로 망명한 이후에는 인성학교라는 초등교육기관과 삼일중학을 설립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해방 후 1947년에는 서울에 '건국실천양성소'라는 학교를 설립하여 스스로 소장을 맡아 새로운 국가건설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민교육을 실행하였다.⁴⁸⁾

교육에 대한 김구의 사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이고 또 하나는 민주교육이다. 의무교육의 실시는 해방 전부터 그가 일관되게 주장한 것으로 1941년에 공포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건국강령은 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지만, 당시에 김구가 임시정부의 최고 지도자인 주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김구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삼균주의란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그 조건으로서 정치, 경제, 교육의 세 영역에서 균등을 실현하려는 이념이다. 즉, 정치에서의 보통선거, 경제에서의 토지 및 생산기관의 국유, 교육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 안에서 특히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는 적어도 중등교육까지 국비에 의한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균등의 이념은 해방 후 국가건설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김구가 일관되게

48) 김삼웅, 앞의 책, 548-557쪽을 참조.

49) 위의 책, 558-562쪽 참조.

주장하였고, 실제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제도는 1949년에 한국정부에 의하여 실현되었다.

나아가 김구는 국민에 대한 교육이 국민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실시되고 민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자율성을 위한 민주교육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종교적·정치적 가치에 근거하여 국민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원래 진선미의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 영역은 정치 영역과는 달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세계가 아니다. 따라서 소수 또는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자율성이 절대적인 것으로 존중되어야만 한다.

특정한 종교적·정치적 입장에 근거한 교육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자율성을 해쳐 문화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비록 그것이 다수결의 절차에 의하여 형성된 민주적인 정통성을 지닌 정부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 김구는 이런 관점에서 “어느 한 학설을 표준으로 하여 국민의 사상을 속박하는 것은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정해서 국민의 신앙을 강제하는 것과 같이 옳지 아니한 일”이라고 비판하고⁵⁰⁾, 교육의 종교적·정치적 중립성을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1946년에 미군정이 서울에 종합대학교를 설치하려는 방침을 발표했을 때, “학원의 자유정신에서 민주주의 원칙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⁵¹⁾

둘째, 교육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배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으로부터의 교육의 자유는 국민의 자율성 형성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유가 곧 자율과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구는 현대국가에서의 자유가 “각 개인이 제멋대로 사는 것” 또는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민족국가 및 인류공동체에 대한 “일종의 규범의 속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⁵²⁾ 즉,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자유는 공동체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을 수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0) 김구, 『백범일지』, 428쪽.

51) 김삼웅, 앞의 책, 565쪽 참조.

52) 김구, 『백범일지』, 427쪽.

최고 문화로 인류의 모범이 되기로 사명을 삼은 우리 민족 각 사람은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주장하되, 그것은 저 짐승들과 같이 저마다 제 배를 채우기에 쓰는 자유가 아니요, 제 가족을, 제 이웃을, 제 국민을 잘살게 하기에 쓰는 자유다.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다.⁵³⁾

이처럼 자유의 개념을 파악하고, 김구는 신국가의 교육이 ‘공원의 꽃을 꺾을 자유’, 즉 이기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 즉 국민과 인류공동체에 대한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배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교육이 단지 생활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과 정치’에 대한 ‘건전한 철학’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했다.⁵⁴⁾ 그에게 윤리적인 문화국가의 발전은 오직 국민 스스로의 자율과 책임의식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교육은 국가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국민이 개인적인 욕망과 이기주의를 넘어서 공동체에 대하여 책임 있는 건전한 덕성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

V. 맺음말

이 글은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 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국가건설 구상의 한 특징을 부각하려고 노력했다. 문화국가란 진선미의 문화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문화국가의 이념은 현대의 국민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행복과 통합, 인류의 평화에 공헌하는 것으로 헌법에 명기되어 있다. 김구의 문화국가론은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면서도 다음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다양한 문화의 존재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특히 도덕적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문화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에게 문화의 발달이란 한 사회 안에서 보다 높은 도덕 및 윤리 가치가 실현되는

53) 위의 책, 432쪽.

54) 위의 책, 432쪽.

것을 의미했다. 이처럼 윤리적인 문화가치를 중시한 배경에는 두 가지의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한민족 고유의 도덕적인 문화전통을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국가건설에 필요한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인 문화가치에 의하여 국제평화의 규범을 새롭게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문화 민족주의에 수반되는 배타성의 경향은 민족자결권에 대한 상호 인정과 보편적인 인류문화에 대한 문화철학적 성찰을 통하여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둘째, 문화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으로서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정신적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민주교육과 자율의식을 강조했다. 한 사회의 문화 발전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문화가치를 자유롭게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인간의 정신적 자유는 천부적인 인권으로서 철저히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요구되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과 더불어, 민주적인 교육을 통한 자율의식의 배양을 강조했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율의식은 교육의 종교적·정치적 중립성과 공동체 교육을 통한 책임의식의 배양에 의하여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김구의 윤리적 문화국가론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그의 도덕적 이상주의는 인류의 인문주의적인 문화 이해의 하나로써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것은 문화를 주로 하나의 상품으로서 파악하는 현대사회의 자본주의적 문화이해에 대하여 하나의 반성의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국제규범에 대한 강조는 적극적 평화론의 한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자율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주장은 문화민족주의에 수반되기 쉬운 전체주의적 경향, 즉 민족을 위하여 개인 권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억압적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문화국가의 한 존재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구는 문화국가를 건설하는 주체, 즉 내이션 형성의 주체를 어디까지나 혈통과 역사를 같이하는 한민족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에스닉 내셔널리즘의 주장은 1945년 해방 직후라는 시점에서는 한국사회의

통합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당시의 한국사회는 거의 한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새로운 국가건설에서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한민족의 의식을 ‘식민지의 신민으로부터 독립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이션 형성의 주체를 오직 한 민족에게서만 구함으로써 혈통과 역사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타자화하는 역기능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민족자결권의 보편성이나 다른 민족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지탱해왔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방 직후 한국사회에서는 중국인, 한국인 남편을 둔 일본인 처 등, 소수이지만 다른 민족이 지속적으로 거주했다. 나아가 현재의 한국은 급격한 저출산과 더불어 다양한 외국인의 이주 및 국제결혼에 의하여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급속히 이행하고 있다. 한민족이라는 에스니티를 넘어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또 하나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참가할 수 있는, 보다 ‘열린’ 민주적이고 시민적인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것이 김구의 문화국가론의 의의를 존속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해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⁵⁵⁾

55) 한국은 2005년에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다음 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이 처음이지만 유럽 등의 선진국가에서는 일반적인 권리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은 김구의 단일민족국가론의 문제점을 극복해가는 하나의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구 지음,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김구 자서전』. 돌베개, 2002.
- 김구 지음, 도진순 편, 『백범어록』. 돌베개, 2007.
- 김구 지음, 백범학술원 편, 『백범 김구선생 언론집(상)』. 나남출판, 2004a.
_____, 『백범 김구선생 언론집(하)』. 나남출판, 2004b.
- 김삼웅, 『백범김구평전』. 시대의창, 2004.
- 도진순, 「1948-49년 김구 평화통일론의 내면과 외연」. 『정신문화연구』 제27권 4호, 2004.
- 문중섭, 「백범김구의 이상국가론과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 이상국가론의 내용분석」.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2호, 2009.
- 손세일, 『이승만과 김구』 시리즈3권. 나남출판, 2008.
- 신용하, 「백범김구의 새 민주문화국가 건설론과 세계평화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6집, 2008.
- 양윤모, 「김구와 『백범일지』」. 『한국학보』 제28권 1호, 2002.
- 엄연석, 「김구의 인문적 민족주의에 내포된 문화철학적 목표」. 『인문연구』 제55호, 2008.
- 이상엽, 「문화, 문화학, 문화철학」. 『사회와 철학』 제7호, 2004.
- 이상환, 「김구의 국제정치관에서 본 21세기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전략」.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2007.
- 전재호, 「해방 이후 김구의 정치이념과 자유주의」. 『신아세아』 제14권 3호, 2007.
- 정경환, 「백범김구의 정치사상에 관한 연구-민족주의론과 민주주의론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외교사논총』 제20집, 1998.
- _____, 「백범김구의 이상국가론-문화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2호, 2006.
- 한시준, 「백범김구의 신국가건설론」.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3집, 2005.
- 家正治, 『國際連合と民族自決權の適用』. 神戸外国語大学外国語研究所, 1980.
- 姜在彦, 『朝鮮儒教の二千年』. 朝日新聞社, 2001.
- 김구(金九) 著, 梶村秀樹 訳注, 『白凡逸志—金九自叙伝』. 平凡社, 1973.
- 金東勳, 『人權・自決權と現代國際法—国連實踐過程の分析—』. 新有堂, 1979.
- 杉原泰雄, 「『文化國家』の理念と現実—日本国憲法下における『文化と國家』」. 『法律時報』 第71卷 6号, 1999.
- 松井芳郎, 『現代の國際關係と自決權』. 新日本出版社, 1981.

Nye, Joseph S.,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Shin, Gi-Wook,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Politics, and Leg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이진준 역,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창비, 2009).

국 문 요 약

이 글은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초점을 맞추어 해방 후 한국의 국가건설 구상의 한 특징을 고찰했다. 문화국가란 진선미의 문화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향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김구의 문화국가론은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면서도, 다음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다양한 문화의 존재의의를 인정하면서도, 특히 도덕적 이상주의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문화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 고유의 도덕적인 문화전통을 중심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형성하여 국가건설에 필요한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윤리적 문화가치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평화규범을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었다. 둘째, 정치적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문화국가 발전의 기본조건으로 정신적 자유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민주교육과 자율의식을 강조했다.

김구의 문화국가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 첫째, 그의 도덕적 이상주의는 인류의 인문주의적인 문화전통의 하나로서 보편성을 지닌다. 둘째, 도의적 국제규범에 대한 강조는 적극적 평화론의 한 시도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셋째, 개인의 정신적 자유와 자율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주장은 시민사회 주도의 문화국가의 한 존재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김구는 네이션 형성의 주체를 어디까지나 한 민족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국가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적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할까 하는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투고일 2014. 9. 24.

심사일 2014. 11. 21.

게재 확정일 2014. 11. 26.

주제어(keyword) 김구(Kim ku), 국가건설(nation-building), 문화국가(culture state), 도덕적 이상주의(ethical idealism), 국민통합(national integration), 국제평화(international peace), 자유주의(liberalism), 자율성(individual autonomy)

Kim Ku's Theory of Ethical Culture State and Liberalism

Lee, Yong-chul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ulture State theory of Kim Ku to explicate a characteristic of state-building in the liberated Korea. Culture State means a state strongly oriented toward realizing the cultural value of truth, good and beauty. Besides the basic orientation, Kim Ku's theory has two peculiar characteristics. First,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thical idealism, while recognizing cultural diversity. He had two political objectives when he argued for it: First, he wanted to build national identification and integration based on the Korea's own tradition of moral culture. He also wanted to construct the norm of pea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based on the moral culture.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liberalism, he emphasized individuality, liberal democracy, democratic education and individual autonomy as basic conditions of development of Culture State.

Culture State theory of Kim Ku can be evaluated as follows: First, his ethical idealism is based on the universal tradition of humanism. Second, his emphasis on the ethical norm of international society is worth paying attention as an approach for positive peace. Third, his argument for individual liberty and autonomy supports his concept of Culture State as led by civil society. However, Kim Ku considered ethnic Koreans as the builder of the nation. This is problematic in the contemporary multi-cultural society in which diverse ethnic groups participate.